

제230회 임시회
2016. 3. 14.(월)

시 정 질 문



남 양 주 시 의 회
의 원 원 병 일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금동, 도농동, 진건읍, 퇴계원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원병일 의원입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퇴계원·도농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 문제와
다산신도시 개발에 대비한 도로 교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퇴계원면과 도농동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21회 제2차 본회의 당시 본 의원은 본 사항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퇴계원의 경우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강
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15년 뉴타운 사업 지정
해제가 예상되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행부에 지정
해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도농동의 경우 합류식 처리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부영아파트 단지의
집중호우 시 피해와 악취 등의 생활불편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퇴계원 350억, 도농동 60억 원의 막대한 예산과 자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들어,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과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는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의 움직임이 없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재차 강조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퇴계원과 도농동 일부 지역의 하수관거는 현재 합류식 처리방식인 관계로 집중호우 시 하수량 집중으로 인한 피해와 낡은 정화조 시설로 인한 악취 등의 주민 불편이 있는 방식입니다.

퇴계원 지역의 경우 첫 삽도 뜨지 못 하고 해제되어 버린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실망감과 허탈함을 안겨준 것과 동시에, 예정되어 있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미추진으로 앞서 언급한 불편을 겪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농동 지역의 경우 대부분 다산 신도시 개발 사업과 함께 분류식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뉴타운 사업이 중단된 도농동 빙그레 공장 입구 구시가지 지역은 퇴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염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의 경우 관련 국가 예산확보로 충당하고, 중앙부처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관련 국가 사업을 확보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추진 과정을 수시로 알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퇴계원 지역과 도농동 일부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오폐수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산신도시 도로 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2010년도부터 우리시 진건읍, 지금동, 양정동, 도농동 일원에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이후 보상협의를 지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도부터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되어 2018년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조성사업은 지금지구 61만 6천여 평, 진건지구 82만평 등 총 143만 6천여 평의 넓은 부지에 약 3만 2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우리시 최대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 시행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 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인 만큼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현재 다산신도시 지역 도로계획으로는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 정체와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다산 신도시 조성으로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86,098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교통대책은 국도43호선 연결과 국지도 86호선 확장 등을 포함하여 사업 지역 일부만 국한되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도농삼거리에서 고속도로로 진출하는 주요 도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농동 빙그레공장 입구와 이마트 입구, 양정초등학교 앞 구름다리의 경우 현재도 왕복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조성되어 출퇴근 시간에는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산신도시 입주까지 이뤄진다면 병목현상으로 인해 많은 차량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후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조치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다산신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실시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미리 대비해야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다산신도시 내 인구 증가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에 대하여 향후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두 가지 사항 모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별시보다 더 특별한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시장께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